

“청년의 꿈 싹트는 보금자리 만들겠다”

김명지 광주 북구청년센터 청년업무담당 실무관

도전 기회 넘쳐나는 ‘청년자치문화’ 활성화 주력 청년서로서로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고민을 풀어나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북구청년센터 ‘청춘이랑’에서 청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명지 북구 교육지원과 실무관은 7일 “청년자치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며 청년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김 실무관은 “북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청년인구를 보유한데다 전남대나 동강대, 교육대 등 많은 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청년들을 위한 거점공간과 지원 시스템이 필요했다”며 “청년센터 조성은 민선 7기 북구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한 결과물이며, 기획 단계부터 청년들을 참여시켜 건물 내 외부 디자인, 공간 구성 등 젊은 층의 문화 트렌드에 맞는 시설로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무관은 이어 “센터는 지난달 11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북구지역 청년들이 스터디 모임이나 회의, 강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현재 센터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으로는 청년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청년서로서로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실험해 볼 수 있는 지원사업인 ‘청년도전, 무한상상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켜줄 지원 시스템이 생겨 센터에 찾아오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무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마음까지 신경써줄 수 있는 마음건강·심리상담 등 청년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강좌나 소그룹프로그램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센터가 중흥동 도시재생 핵심지역에 위치해 있어 청년과 도시,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연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북구의 청년문화를 다양한 모습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거점지역이자 청년과 지역주민들 간 교류 확대로 활발한 경제활동 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 실무관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청년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에 상담프로그램이나 희망 강좌들에 대한 일정을 미루고 있고,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상담이나 취업 컨설팅 등을 진행하지 못하다보니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 실무관은 “‘북구에서 청년의 삶을 꿈꾸는 곳’이라는 센터의 궁극적인 목표처럼 청년들이 북구에서 ‘살’수 있도록, ‘살’고 싶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청춘이랑’이라는 플랫폼에서 청년들과 도시, 문화, 사회적 경제, 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청년들이 북구지역에서 지속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준기자



전남도교육청, 심리방역 상담 프로그램 호응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지난 4일 광양백운수련장에서 ‘숲으로 행복소풍!’이라는 이름의 심리방역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14년부터 실시해 온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프로그램’을,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부모-자녀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프로그램 명칭과 내용을 변경 운영한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도교육청이 주관하며, 올해는 대구·대전·충북·전북·경남교육청에서 협력해 진행한다.

여기에는 전남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학부모 15팀, 총 30명이 참가해 ‘자녀와 행복하기’를 주제로 야외활동, 미술·놀이치료,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심화캠프 운영 및 대학생 멘토 활동을 통해 장기적인 추수관리를 한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늦어져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것이다”며 “부모님들께서 든든한 지지자가 돼 주시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원하거나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또래관계 개선을 원하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을 2회 이상 더 추진할 예정이다.

/최권범기자



곰두리봉사사회 전남지부-인슈코아 호남본부 사회공헌 협약

한국곰두리봉사사회 전남지부와 인슈코아 호남본부는 최근 사회 공헌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보험 판매 전문회사인 인슈코아는 장애인 보험 인수 확대를 통해 장애인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기로 했다. 전남곰두리봉사사회 후원회원과 함께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보험사고 보살 안내와 보험 가입자 후원 기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현장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남곰두리봉사사회는 사회공헌 협약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위원으로 김순호 변호사를 비롯해 의료지원위원 박형규 본 정형외과 원장, 손

해사정자문위원 김동현 손해사정사, 자동차정비자문위원 정대웅 신인자동차공업사 대표 등 지역사회 각계 전문자문위원단을 구성해 폭 넓은 보험사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종찬 한국곰두리봉사사회 전남지부 회장은 “지역사회 장애인 단체와 교류를 확대해 교통사고 등 보험사고 발생 시 원활한 보상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기업단체 간 사회 공헌활동이 활발히 이뤄져 사랑의 나눔 실천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표=정해선기자



삼일파라뷰문화장학재단, 광주대 발전·장학기금 기탁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는 (세암)삼일파라뷰문화장학재단 최갑렬 이사장이 학교 발전과 토목·건축·부동산학과 학생 장학금 및 연구활동비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1천500만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대와 삼일파라뷰문화장학재단은 지난 6일 학교 행정관 교육혁신지원실에서 김 총장과 최 이사장, 김광용 광주대 기획처장, 최인술 삼일파라뷰문화장학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장학기금 기탁식을 가졌다.

최 이사장은 “저의 모교인 광주대에서 공부하

는 토목·건축·부동산 전공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면서 “이번 발전·장학기금 기탁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모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어려운 때 도와주는 친구가 더 좋은 친구라는 말이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발전·장학기금을 기탁해 준 것에 7만여 동문과 교직원, 학생을 대표해 감사하다. 광주대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광주·전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심리지원 서비스 운영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위탁 운영 중인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재난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결식위기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로, 전문 상담활동가와 적십자 심리지원 봉사회원들이 유선 및 방문상담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유선상담 내용은 재유행하는 코로나19 예방수칙과 함께 재난상황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와 정서지원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과 무력감 등의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대상



으로도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신청은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광주 062-570-7725 / 전남 061-272-0498)로 하면 된다.

/김동수기자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는 지난 6일 여수시 관내 저소득세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해 달라며 3천만원 상당의 사회공헌 사업비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여수시청에서 진행된 성금전달식에는 권오봉 여수시장, 한국남동발전(주) 여수발전본부 신운오 본부장, 전남 사랑의열매 김상균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전달된 성금으로 여수시 저소득 5세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일상생활이 편리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길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보수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신운오 한국남동발전(주) 여수발전본부장은 “지역주민의 행복가치 향상을 위한 기업 일원으로서 국민복지에 기여된다고 생각해 이번에 주거생활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에 보탬



하는 기업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균 전남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지역사회 맞춤형 지원과 봉사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며 나눔 행보를 같이 해주신 한국남동발전(주) 여수발전본부에 감사드립니다”며 “많은 기업들이 나눔에 참여해 나눔 문화를 이룩하는데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도월희 전남대 교수,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전남대학교 도월희 교수(의류학과)가 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도 교수는 ‘3D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니어 남성 기성복 피팅용 드레스폼 개발에 관한 연구’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3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가 주최한 ‘제30회 올해의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도 교수는 이 논문에서 노년 남성의 3차원 인체형상 데이터를 가공해 기성복 제조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피팅용 드레스폼을 3차원 스캐너로 출력함으로써 시니어 기성복의 스마트 제조공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 교수는 전남대 생활과학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의류산업학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권범기자

이종화 호남대 교수, 소방청장 표창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학과장 노선균) 이종화 교수는 지난 6일 소방청으로부터 화재안전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사)한국화재소방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소방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학생 지도와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소방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서 소방청장 표창을 받도록 도와준 (사)한국화재소방학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지속적인 화재안전 학술연구와 함께 인공지능 융합형 인재육성, 일자리 개선 및 창출 등에도 힘써 국가안전에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이근배 전남대 교수, 대한골절학회장 취임



전남대학교 이근배 교수(정형외과학교실)가 최근 제 36대 대한골절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1985년 골절연구회로 출발해 올해 35주년을 맞은 대한골절학회는 정형외과 관련 학회 중 가장 많은 1천800여명의 전문의가 정회원 이 활동하는 정형외과 분과 최대 규모의 학회로서 외상환자 및 골절환자의 치료와 기증 및 응용 연구를 통해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교수는 “다양한 심포지엄의 활성화, 국제적 네트워킹 참여기회 확대, 학회 저널의 질적 향상 등 교육과 연구에 중점을 두고 학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진목과 화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동신대, ‘강소기업 설명회’ 개최

동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7일 대학 중앙도서관 1층 동강홀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강소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설명회에는 재학생 40여명이 참여해 지역 강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었다. 또한 컨설팅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등 채용 관련 정책과 기업의 최근 인재 채용 관련 정보, 직장생활 예절을 배웠다.

/최권범기자

결론

- 김병영·안기순씨 장남 승진균, 허기랑(담양중·영파출소장)·홍복자씨 차녀 민주양=11일(토) 낮 12시 광주 서구 치평동 홀리데이 인 호텔 2층 라벤더홀.
- 지장근·박정자씨 장남 광진균, 장지형(강진경찰서 수사과장)·천미희씨 장녀 정운양=18일(토) 낮 12시 광주 광산구 수완동 드메르웨딩홀 2층 CN홀.

부음

- 김광자씨 별세, 안형석(전 광주매일 기자)·병이(전 조은내과 원장)·설미씨 모친상, 오경섭(부안 21세기병원장)·박진환씨 장모상=발인 8일(수) 오전 8시30분 광주 VIP 장례터는 501호(062-521-4444).
- 강영순씨 별세, 오인성(농협 화순군지부 기업금융지점장)씨 모친상=발인 8일(수) 광주 광산구 우산동 만평장례식장(010-6600-9477).